

“그러니까, 어떻게 나같은 놈에게 책을 주냐고”

행복한 책 읽기

김훈 '원형의 섬 진도' (이래 쉼)

꿈 꿀 권리

박영숙 지음

이 책을 접하게 된 건 부재 때문이었다. '어떻게 나같은 놈에게 책을 주냐고' 현직 도서관장이 자기 도서관 이야기를 펴낸 평범한 책이라 생각했다. 궁금증이 일었다. 프롤로그에 이야기가 펼쳐진다. 열한 살 때부터 도서관에 다니다 스물일곱이 되었는데는 현재 도서관에서 인턴으로 근무중이다. 간신히 초등학교만 졸업한, 도서관 역대 최고 말썽쟁이에서 이제 '도서관 청년'으로 불리는 그가 던진 말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나같은 놈이 책을 볼 거라는 생각을 하냐고요?"

도서관을 찾은 아이들에게 '관장'이 아



'느티나무도서관'에서 벌어진 15년 이야기

세상을 바꾸는 힘은 '?... 그 출발은 도서관

닌, '간장'으로 불리는 박영숙 느티나무도서관 관장은 "책을 건네는 건 존엄함에 말을 거는 일"이라고 믿는다. 그리고 그 말 건네기가 쉬운 공간이 바로 도서관이라고 생각한다.

박영숙 느티나무도서관장이 발간한 '꿈 꿀 권리'는 1999년 경기도 용인에 문을 연 민간 사립 공공도서관 '느티나무도서관'에서 벌어진 15년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저자는 책이 얼마나 위대한 지, 동네 도서관 운동이 얼마나 필요한 지 구구절절 이야기하지 않는다. 그저 도서관을 찾은 아이들과 어른들에게서 벌어졌던 이야기들을 가

감없이 들려주는데, 잔잔한 감동을 준다.

박 관장이 도서관을 만든 것은 결국 '자유'에 대한 바람이었다. 책 읽는 사람에게서 우리 앞을 가로막는 삶의 빛장을 열어젖히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이다.

느티나무 도서관에서는 '봉사 증명서'나 따러 오는 골칫거리 청소년 봉사활동에도 힘을 쏟는다. 경쟁이나 성공이 아닌, '도서관은 맑게 반등거려도 좋고 열매든지 실패할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곳'이라는 인식을 심어준다. 또 가족들이 함께 참여하는 '패킷', 유아들에게 그림책을 읽어주는 '마미도' 등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느티나무 도서관은 또 10대 미혼모, 장애인, 이주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와 소수

자들에게 필요한 정보 서비스도 제공한다.

이 책에는 화려한 성공담만 있는 게 아니다. 도서관이 진행했던 많은 일들은 실패하기도 했고, 지금도 방향성을 잡기 위해 고민하고 있다. 때론 애정을 쏟았던 사람에게 배이고, 상처입기도 했다.

박 관장은 세상을 바꾸는 힘을 한 글자로 담을 수 있는 세계 공용어는 '물음표-?'라고 했다. 그건 선행의 출발 신호고, 그 물음표를 던지는 힘을 조금이라도 갖게 해주는 게 바로 책과 도서관이라고.

저자는 느티나무의 무모한 도전이 가능했던 게 '사립'이라는 것과 '협력'이라는 키워드가 있어 가능했다고 말한다. 최근 광주에도 작은 도서관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도서관을 운영하는 사람, 이용하는 사람, 지원하는 사람, 모두 꼭 읽어봐야 할 책이다.

〈알마·1만7500원〉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조선 성종 29년(1489), 전라도 관찰사 이숙함이 진도를 맡았다.

"진도는 그 길이가 50~60리인데 산이 높고 물이 깊다. 땅이 기름지고 목장이 있어 비단 같은 말뚝이 들을 덮은 땅이다. 유자나무가 주렁주렁 과일로 숲을 이룬 곳. 이를 일러 보물의 광이요 재물의 곳집"이라고.

진도는 천혜의 요새인 까닭에 외부의 침입이 잦았다. 고려 고종이 몽골의 요구대로 개경 환도를 결정했을 때, 삼별초 군사들은 항몽을 계속하기 위해 진도로 떠났다. 고구려를 이은 자주정신과 해양기술이 총집결된 대이동이었다.

740여 년 전의 고려 정부는 몽골과 연합하여 진도를 짓밟았다. 임진왜란 때에는 이순신 장군에게 패전을 거듭하던 왜구의 침략로 초토화되었고, 동학혁명 때는 최후 항전지로 남아 관군에게 백성들이 살육된 땅이다.

진도 사람들은 대대로 삶과 죽음을 넘나들며 인간의 비속함과 신성함을 동시에 받아들여져 되었다. 아름다움과 풍요로움으로 인해 오히려 화를 입은 땅. 진도는 우리 민족의 한을 가슴으로 품고 함께 우는 땅이었다.

새로 나온 책

▲18세기 오스만 제국의 수도 이스탄불을 가다=세계 여행자들이 꿈꾸는 최고의 관광지이자,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까지 그 세력을 떨쳤던 18세기 오스만 제국의 수도 이스탄불로의 여행에 관한 책. 베일에 가려진 이슬람 여인들과 유럽 각국은 물론 오스만 제국 전역에서 들려온 각각의 색의 사람들도 만나볼 수 있다. 노예시장으로 가 아름다운 여인들을 엿보기도 하고, 현지인들과 어울려 비밀을 감춘 듯한 커피하우스나 아편굴을 찾아 금단의 쾌락을 맛볼 수도 있다. 〈시그마북스·1만3500원〉

▲이념을 넘어 이성의 시대로=전략, 관계, 논술, 조직, 처세, 싸움, 인식, 상술 등 8개 카테고리에 걸쳐 200개의 스킬, 500여 권의 사례를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정리했다.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우리 사회 뉴스 메이커들의 삶의 방식과 스킬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편집했다. 각 항목에 소개된 스킬은 정글 같은 현실에서 사투를



벌어는 현대인들에게 '필살기'의 하나가 될 수 있다. 대학생이나 취업준비생, 직장인들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센서북스·1만3800원〉

▲보르헤스 그리고 창작=보르헤스를 좋아하는, 보르헤스와 공감하는 사람들의 글모음집. 장르를 규정할 수 없는 이 책은 보르헤스라는 거장의 꿈을 통해 새로운 창조를 또다시 꿈꾸는 행위다. 책은 틀 속에만 갇혀있는 문학에서 벗어나 너무 무겁지도, 그렇다고 가볍지도 않은, 그럼에도 문학다움을 잃지 않은 시도를 보여주고자 한다. 20세기에 존재했지만 우리시대의 삶을 보여준 보르헤스의 글쓰기와 독자로

서의 글읽기가 중첩되는 경험을 느낄 수 있다.

〈희래출판사·8600원〉

▲세종처럼=총163권 154책으로 구성되어 있는 방대한 '세종실록'의 요체를 국가의 최고경영자이자 리더인 세종을 주인공으로 두고 입체적으로 통찰하고 현재적으로 망라했다. 책에 나온 세종대왕은 전제적 군주가 아닌 국가 조직의 최고경영자로서 그려진다. 그가 이룬 위대한 결과보다 정책을 세우고 실행해 성공시킨 비결이 주요 논점이다. 1~3부 각각의 장은 저자 박현모의 '세종실록학고' 강의 내용을 토대로 만들어졌다. 4부는 어록으로 보는 세종 리더십 '세종실계명'이다. 〈미다스북스·2만원〉

어린이 책

▲책을 구한 고양이=뿌리에서 각종 이야기를 빨아들여 주렁주렁 책열매를 맺는 신기한 책나무. 어느 날 갑자기 모든 책의 내용이 사라져 버리는 이상한 일이 벌어진다. 책을 고르는 선택과 기쁨으로 날마다 행복하게 아침을 열던 와다와 다다는 책의 내용이 몽땅 사라지자 빨간 가면을 쓰고, 나무 도서관 7개의 방으로 모험을 떠난다. 〈노란돼지·1만3800원〉



▲엄마와 함께하는 요리는 멋지다=여덟 살 아이와 엄마가 함께 엮어 가는 요리와 일상을 그린 어린이 요리책. 정확하고

친절한 조리법보다는 요리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재미난 경험들이 많이 실렸다. 요리에 관심 있는 어린이들은 물론, 요리 때문에 걱정 많은 엄마도 함께 공감할 만한 이야기와 유용한 정보가 가득하다.

〈한겨레아이들·1만1000원〉

▲아빠가 사라졌다! =사물로테와 마리아는 친한 친구다. 하지만 이 두 여자아이네 집은 정 반대. 자유로운 사물로테네와 달리 모든 하루가 정해진 시간대로 움직이는 마리아네집. 상반된 두 가정은 보며, 자신

의 가정에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게 한다. 과연 우리 집은 어떤지, 가족과의 관계는 어떤지 골똘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어 준다. 〈단비어린이·1만원〉

▲속담 속의 숨은 수학2=속담 속 수학 원리를 알차게 풀어내는 시리즈. 1편 단리와 측정에서 이어 2편 확률과 통계를 배울 수 있다. 갈릴레이와 파스칼, 페르마에서부터 무명카레까지 시공간을 오가며 확률과 통계를 발전시킨 수학자들의 눈부신 성과를 들려준다. 〈봄나무·1만1000원〉

진도는 대한민국의 시작, 엄지발가락

2001년 사진작가 허용무와 소설가 김훈이 '원형의 섬, 진도'를 펴냈다. 허용무는 "진도는 한반도에서 가장 앞쪽으로 내밀어진 땅, 엄지발가락이 인간의 몸에서 가장 앞서 나가듯이, 진도는 한반도 문화의 가장 앞장에 설만한 곳"이라 했다.

'원형의 섬 진도', 김훈의 글을 다시 찾아 읽는다.

진도아리랑 매김소리는 "절박하고도 다급한 그리움이고, (.....)그 소리는 신음이거나 호소이거나 한숨이거나 울음이거나 원망이거나 한탄의 소리다." 씩씩곳은 "산자가 죽은 자의 원한과 슬픔과 죄업을 씻어줌으로써 죽은 자를 죽음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고, 죽은 자에게 죽은 자로서의 위엄과 신성과 평정을 회복하게한다"고 했다.

강강술래는 "개인의 노래는 공동체의 노래가 되고, 공동체의 노래는 개인의 노래가 된다. 강강술래는 한없는 소통이며, 고착이 없는 생성과 변형이다. 진도아리랑의 '아리랑이 님네'는 생성과 전환을 나타낸다. (.....)'아리랑'은 고통과 역능력을 전방으로 바꾸어 놓는 마음의 힘이다."

저자들은 물랐을 것이다. 진도가 신자유주의의 가장 공포스러운 인재(人災)에 노출된 엄지발가락이 될 줄은. 세월호의 비극이 더욱 참담하고 분한 이유는 부패와 무능의 규칙에 철저히 복종한 관료제의 '도덕 관련 재난'이기 때문이다. "잔혹한 살육이 휩쓸고 지나간 패허의 언덕 위에 살아남은 여자들이(.....)강강술래는 단념할 수 없다는 삶의 긍정을.....표출한다."



김현주 1993년 광주일보보신춘문에 소설 당선

일조 공인중개사

"간절함으로 승부하라"

병원 2층 3층 병의원 임대
두암동 무등도서관 사거리면적 306.20㎡

- 수원동 1층 상가 매매 대방노블랜드 2차 인근 매매가 3억
- 금호동 1층 임대 (보증금 1억 월400만) 시비 있음
- 강산동 원룸 동남2차 뒷편 엘리베이터,풀업선 편백 3월준공 매매가 7억3천
- 강화동 원룸 14개 주인세대 매매가 6억9천

나주혁신도시

- 나주혁신도시 근생 D9블럭 3층건물 매매 7억8천 (1층상가, 2.3층 주택)
- 나주혁신도시 근생용지 219평 매매 116,000만원
- 나주 공공임대8블럭 단지내 상가 매매 16평 2층 23,000
- 나주혁신도시 D-9 이주자택지 88평 매매가
- 나주 부곡동 토지 매매 세필지 매매 270,000만원

나주 혁신도시 리버빌딩, 금화빌딩
스마트 플라자 상가 분양
혁신도시내 단독주택, 근생용지 다량 확보

나주 혁신도시 내 우정사업본부 후문 진입로
☎ 010-4226-0504

금당공인중개사

저희는 매매·교환등의 물건을 구입·내다!

감정가이하

- 계림동 4차도로점 상업지 571㎡(173)권사자가 7억
- 은행 5억 5천 9억 5천선 매도 6억 2천
- 월산동 2층주택 농산초등학교 부근 대지 196㎡(59) 건평 162㎡(49) 큰 아파트와 교화도 가능 1억 5천
- 광주은행본점부근 대인동 대로면 649㎡(210)건물 522㎡(158)공시지가 11억 6천 매도 11억
- 계림동 대지 542㎡(164) 건물 396㎡(1200) 18억 2천

투자 / 매도 / 교환

- 쌍촌동부근 고시원 대지 272㎡(87) 건물 493㎡(149) 보증금 3천에 월 600만원의 매도 5억 2천
- 차평중학교부근 대지 386㎡(117) 건평 603㎡(183) 원룸과 투룸 19개 전세 1억 2천에 월 600천 수익 5억2천
- 담양군 대저면 관내지역 853㎡(2587)공정·청고정·정합 대출 1억 6천 매도 2억 2천
- 무인택 적합 부지 나주시 송림동 상업지 1666㎡(504) 대출 13억천 매도 대출인수하고 3천만원
- 쌍촌동 5.18공원2차대지 198㎡(60) 건물 453㎡(137) 1층은 가계와 인접 원룸 15개 5억 6천
- 농성동 소방도로점 대지 206㎡(62)공시지에 매도 8500
- 보성동광명 산 68430㎡(20700)교환한 1억 3천
- 조산대 앞 동양동 대로면 5층 건물 대지 318㎡(96) 건평 736㎡(228) 상가와 원룸들 18개 보증금 1억2천선 월 500천 수익 8억7천
- 쌍촌동 나재지 295㎡(89) 원룸 적합 1억7천
- 나주시 신포면 별장부지 790㎡(234) 매도 1억천

임대

- 쌍촌동 운천역부근 원룸촌지역 1층 234㎡(71)오릭실 호프집 대형식당 PC방 등 적합 보증금 5천에 월 180천 예정

문의 222-4994, 010-2632-5659
쌍촌동 (구) 등기소 자리, 가도 생활주택 전시장

상무하늘땅공인중개사

상가/건물

- 첨단 중심상권 1층 구분매도 85㎡ 매3.5억(보5천, 월150만포함)
- 화정동 교원공제부근 1층상가 225㎡ 매 12억(보1.3억, 월600만) 유명프랜차이즈 입점
- 서구 쌍촌동 5층 상가주택 매 6.8억(보 2100만, 월400만포함)
- 서구 풍암동 대로면 3층건물 매 9.7억(보5천, 월520만포함)
- 서구 차평동 5층건물 매매 40억 (보4억 월2,000만)
- 상무, 첨단 대형물건 다수보유(매수상담환영)

대지/전답

- 북구 용두동 1중주거지역 답 1,990㎡ 매매 6억 6천
- 서구 쌍촌동 대로면 준주거지역 대지 760㎡ 매매 16억
- 남구 주월동 대지 2,290㎡ 매매54억(병원최적)
- 북구 용두동 생산녹지 답 5,000㎡ 매매 12억(청고적합)
- 북구 용전동 생산녹지 답 7,900㎡ 매매 29억(4거리코너)
- 광산구 신창동 생산녹지 답 2,000㎡ 매매 6억5천
- 광산구 대신동 계획관지역 29,800㎡ 매매39억
- 서구 마북동 생산녹지 답 5,400㎡ 매매 20억
- 담양군 월산면 잡종지 29,800㎡ 매매 16억
- 세하동 청고 1,590㎡(건234㎡) 매매 7.2억
- 벽진동 청고 730㎡ 임대 보 5천 월 450만

광주·전남권 부동산 매도 매수 상담환영

상무지구 우리들병원 ~ 세정아울렛 사이
☎ 010-5536-0382 062) 373-0382

저렴한 고급 별장

정남진 별장은?

접근성, 주변 환경, 천혜의 경관이 어울린 고급 수입 목재를 활용한 건축물로 남해안 최고의 별장! 광주에서 50분 거리에 소재한 정남진 별장은 위의 조건을 완벽히 갖춘 곳!

토지 4,900㎡
건물 245㎡
매가 협의

- 정남진 장흥, 특량만 해변가 환상적인 드라이브코스 선 착장과 해수욕장, 바다뷰시, 리조트 등 최고의 워라밸시설과 어울린 명소에
- 캐나다산 수입 목재 건축물(100%)에 수입 창호 등 최고급 자재 및 완벽한 단열, 방음, 방습 및 내부공기 자동 배출 방식의 습주는 별장.
- 완벽한 보안시스템 구축.
- 정남진 별장은 전원주택이 아닙니다.

전화상담 사절.
자세한 문의로는 사무실 내방 바랍니다.

행운(구.대창)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송창석
011-642-7777

원룸 금매

대지 280㎡ (80.5평)
건평 190평

신축 2012년 준공
방금 18개

월임대수입 540만

은행용자 1억4천만

매도가격 3억3천만

나주시 이창동 택지지구내
010-3200-3162